

일반
논문

‘경계인’의 인권과 문학의 인권감수성

아동청소년문학에 재현된 경계인의 인권

김경민 _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논문요약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은 탈북민, 이주노동자, 난민과 같은 경계인들에게 시민권으로서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법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들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인권감수성이다. 문학은 인권감수성을 형성하기 좋은 매개이기에 문학 텍스트의 인권감수성을 살피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인권감수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들이 읽는 문학 작품은 더욱 그러하다. 경계인을 소재로 한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문학은 성장소설의 플롯을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의 성장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일방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회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결핍과 미성숙의 상태로 규정되지만,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한국의 아동청소년에게는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공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은 생략되거나 최소화되고, 그마저도 조력자에 의해 쉽게 해결되는 방식으로 처리됨으로써 갈등의 필요성과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또한 경계인을 재현한 아동청소년문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 **주요어:** 인권, 인권감수성, 탈북민, 이주노동자, 난민, 아동청소년문학

1. '우리' 바깥의 존재를 향한 '우리'의 인권감수성

민주주의를 논하는 데 있어 인권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러한 인권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주로 법적 담론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인간과 그들의 삶을 대상으로 추구해야 할 이상과 가치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과 규범을 묘사하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과 문학의 뿌리는 다르지 않으며, '인권'이라는 주제 역시 법과 문학 양자가 모두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것 중 하나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에 주목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같이 억압되고 배제된 존재의 편에서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앞장서는 문학의 태생적 속성을 생각한다면 문학이 '인권'이라는 주제와 가까이 있는 것이 새삼스럽거나 특이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법과 문학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인권 상황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다.¹⁾ 그러나 이렇게 좋아진 상황에 마냥 만족할 수만은 없다. '우리'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는 동안 '우리'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의 인권이라는, 과거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

1)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우리’는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제한하느냐에 따라 포용적인 표현이 될 수도, 폭력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 예민한 단어다. 본문에서 언급하겠으나,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인권’은 자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락되는 ‘시민권’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기에, 국민이라는 ‘우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에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의미의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특별히 ‘ ’로 구분하기로 한다.

제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천부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근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진 시민권의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언된 바다. 당위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인권이 국가라는 정치 기구와 제도 속에서 법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실현된 것이 바로 시민권으로, 이는 자국의 국민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기에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띤다.²⁾ 따라서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시민권으로서의 인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탈북민과 이주노동자, 난민은 국경을 넘은 경계인들로, 모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다.³⁾ 탈북민의 경우 시민권에 해당하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방인이나 경계인으로 취급받고 있으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주노동

-
- 2)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인권과 기본권을 규정하는 조항은 모두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비롯해 법 앞의 평등과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하는 법조항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만을 주체로 삼고 있다.
 - 3) ‘탈북민’은 현재 법적 용어로 사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약어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보다 덜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사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때 많이 사용했던 ‘새터민’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 정부가 ‘탈북자’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 사용을 권장한 표현이지만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온 사람에는 탈북민뿐 아니라 난민이나 이민자처럼 다양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어 북한이탈주민만의 특수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임정택 외 2021, 140-141).

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비국민의 신분으로, 그중 일부는 불법이라는 이름까지 더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난민은 이들에 비한다면 아직 경계조차 제대로 넘어서지 못한 존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시민권으로서의 인권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법적 적합성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먼저 이들을 괴물, 즉 낯설고 이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 법적 승인만 이루어진다면, 현재 탈북민이나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느끼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경계인이자 괴물, 비인(非人)이라는 타자화된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국민 혹은 민족이라는 경계를 강하게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로서는 국경을 넘어온 낯선 이들을 이해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들을 ‘우리’라는 범주에 포함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감수성이다. 인권감수성이란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과 관련된 상황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가능한 행동을 상상해 보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이다.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인권에 관한 법적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수성

이며, 타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한 공감이다. 이러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사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촉발하는 데 있어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것이 시민의 삶에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능력 중 하나로 다른 사람들의 처지와 느낌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 즉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자신의 입장과 처지에서 상대를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상대의 처지에 자신을 이입해 보는 것이 진정한 공감이며, 이 과정에서 문학 작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⁵⁾

-
- 4) ‘인권감수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 개념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나온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이러한 인권감수성은 크게 상황 지각 능력, 결과 지각 능력, 책임 지각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 지각 능력이란 어떤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며, 결과 지각 능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결과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타인의 ‘정서 인식’ 능력이다. 그리고 책임 지각 능력이란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노희정 2016, 131-132).
- 5) 애덤 스미스는 ‘분별 있는 관찰자’라고 이름 붙인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가 말하는 ‘분별 있는 관찰자’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능력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가진 제삼자를 뜻한다. 그러한 관찰자는 “가능한 한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에 놓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소한 사정까지도 진지하게 느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친구가 처해 있는 모든 사정을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의 공감의 기초가 되는 역지사지를 최대한 완전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스미스 2009, 29-30)는 주장처럼 공감과 역지사지를 강조하는데,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야말로 분별 있는 관찰자적 태도를 정립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애덤 스미스의 이런 주장에 주목하며, 공적 상상력으로서의 문학을 강조했던 마사 누스바움도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과정에서 문학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문학 작품은 일반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입장에 서게 하고, 또 그들의 경험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독자의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해 타인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심리적 동일시와 감정적 반응을 촉진하는 문학 작품들은 직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또 그에 반응하기를 요구하면서 자기방어적 계락을 깨부수어” 전통적으로 당연시되었던 것들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Nussbaum 1998, 93-94). 소설 장르의 이런 특성이 민주주의의 태동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민 교육에서도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누스바움의 주장이다.

인권문화의 출현은 도덕적 지식의 증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전적으로 슬프고 감상적인 이야기들을 전해 들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했던 리처드 로티 또한 인권감수성과 문학의 상관성을 언급한 대표적인 학자다. “인간적 연대”를 강조한 로티는 그것을 모든 인간이 선행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고통 받는 동료들로 볼 수 있는 상상력”을 통해 성취되는 것으로 설명한다(로티 2020, 26). 고통과 모욕을 겪는 타인과의 연대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매우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영역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러한 고통과 모욕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해놓은 소설을 통해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 또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문학적 상상력이 훌륭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로티 2020, 391).

인권 문제에 있어 공감의 중요성을 역설한 마틴 호프만 역시 타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을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언어를 매개로 한 방법을 꼽는다. 공감은 피해자의 고통이 말이나 글을 통해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형성되는 것으로, 타인의 고통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말과 글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기록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 기록된 글이나 허구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호프만 2011). 이들뿐 아니라 인지심리학자인 키스 오틀리는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 공감을 구축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신경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문학 작품과 공감 능력 사이의 상관성을 설명한 바 있다(Oatley 2011, 63).

이렇듯 문학은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형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개 중 하나다. 독자가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물을 만나며, 이야기 속 인물에 공감하는 순간 현실과 허구의 경계는 무너진다. 이야기 속 인물에 공감한 독자는 인물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 분노하거나 비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적 상황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상황과 존재에 대해 시인하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인권감수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인권감수성을 형성하는 문학적 방법인 것이다.

문학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문학 텍스트의 인권감수

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타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 폭력적 시선으로 구성된 문학 텍스트는 오히려 불완전하고 그릇된 형태의 인권감수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동청소년문학은 특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⁶⁾ 법 지식이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과 달리 감수성을 키우는 작업은 유년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권감수성 형성에 있어 아동청소년기와 그 시기의 독서 경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제한된 경험과 정보에 의존해서 사고와 감성을 형성하기에 그들이 읽는 문학 작품은 그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권감수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문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연구하고자 하면서 아동청소년문학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6)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을 규정하는 개념을 따른 것이다. 12세 이전 연령층을 대상독자로 삼은 경우를 아동문학, 13세에서 18세까지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일 경우를 청소년문학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독자층을 기준으로 한 하위 장르 구분 기준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경우 '아동청소년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세계절출판사에서 출간되는 '1318' 문고처럼 텍스트에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대상 독자를 특정해 두지 않는 한 어디까지를 아동청소년문학으로 규정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텍스트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등으로 대상 독자층을 밝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설의 등장인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개념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권, 학습권, 문화권, 복지권, 참여권을 가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 '아동'의 그것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대개 한국사회의 상황에서는 학령 전기는 유아, 6~12세까지(대개 초등학생)는 아동, 13~18세까지(대개 중고생)는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정애 2010, 420-421).

그렇다면 인권감수성이 처음 형성되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동청소년기의 이들이 접하는 문학 텍스트는 과연 충분한 그리고 제대로 된 인권감수성을 갖추고 있는가? 인권감수성 형성을 방해하는 폭력적 시선이 나 문제적 내용이 문학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없는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대상은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아동청소년문학 중 경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이다. ‘경계인’이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탈북민과 이주노동자, 난민과 같이 국경을 넘은 이들을 아울러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라는 범주에는 속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들은 소위 ‘우리’에게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인권에서 소외된 존재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인권감수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기 적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경계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변화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로는 대개 1990년대 이후를 꼽고 있으나,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변화의 양상이 문학에서, 특히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중요한 소재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로는 2000년대 이후를 언급하는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논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2000년대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제한하기로 한다.⁷⁾

7) 본 연구에서 ‘경계인’이라 칭한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아동청소년문학은 이미 많이 발표되어 있다. 특히 탈북민과 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 2세)를 소재로 한 작품은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가 출간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대상[조경숙, 『나는야, 늙은 5학년』((사)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학교도서관지널 도서추천위

인권이라는 화두의 중요성과 인권감수성 형성에 있어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으나, 정작 한 개인의 인권감수성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제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 '경계인'이라 부르는 이들을 소재로 한 문학

원회 추천도서, 2009); 원유순, 『피양랭면집 명옥이』(2005); 박경희,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사)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2018); 공선옥, 『울지마, 산타!』(문화체육관광부 추천도서/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선정도서, 2008); 김일광, 『외로운 지미』(2004); 박관희 외,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달의 읽을만한 책, 2004); 표명희, 『어느 날 난민』(책따세 겨울방학 추천도서, 2018); 박경희, 『난민 소녀 리도희』(전국학교도서관사서협회 추천도서/『(사)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2017))은 여러 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단체로부터 우수도서나 권장도서, 추천도서 등의 명목으로 선정된 작품들이며, 그 중에서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들이다.

문학작품의 가치를 단순히 수상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동청소년문학의 경우 특히 우수도서나 권장도서로 선정된 작품은 독자에게 소개되고 노출될 기회가 더 많다는 점에서 그 작품이 갖는 상대적 무게와 책임감은 더 클 것이고, 그만큼 그 작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예민하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작품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이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라 다른 시선에서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 작품들을 우선해서 살펴계 되었다. 참고로, 탈북민과 이주노동자를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은 아주 많은 수가 출간된 상태라 추천도서나 우수도서로 선정된 것들 중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거론된 작품을 선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난민'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은 아직까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난민 소녀 리도희』의 경우 제목에서는 '난민'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탈북민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난민'에 해당하는 작품은 표명희의 『어느 날 난민』이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기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는 이후 다른 논의의 기회를 통해 계속해서 보완해 가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작품을 분석한 선행 연구가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연구들에서는 몇 가지 공통의 한계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자 한계는 기존 연구의 상당수가 아동청소년문학의 장르적 특수성을 당연시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아동청소년문학을 표방하는 상당수의 문학 작품들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며,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대상이며 이런 독자를 위한 문학은 교육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계몽과 교훈의 의도가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 또한 문학교육, 아동청소년교육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처음부터 이러한 관점에 대해 전제하거나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분명 필요하겠으나, 인권을 고민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당연시되는 시각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감수성은 무의식적으로 매개된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그간 많은 연구에서 교육과 계몽이라는 미명으로 당연시하면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다시 읽기'를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정치적인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문학일수록 더욱 정치하고 섬세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독자가 접하는 문학 텍스트의 인권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 텍스트에 내재된 시각과 재현된 모습에서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드러

나는 오해와 폭력의 시선은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 과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2. 일방에게만 강요된 불공평한 성장 이야기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지칭”(한용환 1999, 251)하는 것이 성장소설이라는 정의에 비춰보면,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문학이 성장소설의 플롯을 띠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아동문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을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담론적 실천”(김태호 2021, 41)이며, “정체성을 찾고 성장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다루기 때문에 청소년소설은 태생적으로 ‘성장의 서사’일 수밖에 없다”(정미진·이영석 2018, 284), “개인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성숙에 이르는데,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의 경험이나 생활을 형상화하는 청소년문학은 성장 서사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김화선 2009, 554) 등 아동청소년문학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설명만 보더라도 아동청소년문학과 성장소설과의 친연성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등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의 목표 또한 ‘성장’으로 설정되어 있다(정재립 2018). 경계인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

는 텍스트들의 서사구조 또한 일반적인 성장소설의 플롯을 따르고 있다.⁸⁾ 주인공은 이질적인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기존의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주인공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국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한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령 『나는야 늙은 5학년』은 열다섯 살의 탈북자 명우가 자신의 나이보다 어린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을 가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 전형적인 성장소설이다. 언어나 문화가 이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야 하는 데다 형과 단둘이 생활해야 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진 상황이 명우가 처한 상태다. 그러나 명우에게는 옆 반 선생님과 짝꿍 은지, 헤리처럼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명우 스스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덕분에 결국에는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주노동자 2세인 산타가 주인공인 『울지마 산타』의 이야기도 성장소설 플롯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불법체류자인 까닭에 아파도 제대

8) 일반적으로 성장소설이란 소년이 성인이 되어가면서 겪게 되는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그리고 세계의 주체로서 정립되는 각성의 과정을 담은 것을 의미하지만, 교양소설, 발전소설, 형성소설, 입사소설, 교육소설, 보존소설 등과 같이 유사한 형식적 구조와 특징을 지닌 하위 장르가 다양한 것만큼이나 개념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장르다. 그러나 주인공의 변화 양상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안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적 특질은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최현주, 1999).

로 치료를 받지 못하며, 심지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산타 또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학교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시비와 언쟁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다. 하지만 산타에게도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이정 신부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산타를 구해주는 가현이와 같은 조력자들이 있다. 무엇보다 산타는 힘들 때마다 스스로 ‘울지마 산타!’, ‘이겨내야 한다’를 주문처럼 외치며 글을 쓰는 것으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해 간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난민 소녀 리도희』 또한 아버지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변고로 북한을 떠나 난민 신세가 된 소녀가 캐나다를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긴 여정을 혼자서 이겨내고,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장 이야기다. 특히 홀로 탈북하는 바람에 혼자서 낯선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도희는 당차게 고난을 이겨나간다. 언급한 이 소설들뿐 아니라 대상이 된 소설 모두 미성숙한 상태의 주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에 이르는 이야기 구조를 보인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은 성장의 주인공이 모두 경계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설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서술자 또는 초점화자가 경계인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계인이 자신의 목소리와 시선을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재현되는 대상으로만 취급되었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의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진일보한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경계인에 해당하는 인물들만을 성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 내면적 성찰을 경험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기에, 성장소설 플롯이 전제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주인공의 ‘미숙함’이다. 즉, 주인공의 상태는 언제나 결핍되고 불완전한 ‘문제적’ 상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해서도 자주 제기되는 비판의 지점이다. 아동청소년문학은 “‘미숙함’을 강조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의 “‘미숙함’은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는 바람직한 청소년상 다시 말해 ‘성장의 보편적인 모델’에 대한 전제로 이어진다”(김성진 2011, 67)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계몽과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미숙하고 미완인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바람직한’ 성장의 방법과 결과로서의 ‘이상형’을 제시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차치하더라도, 그 성장의 대상, 즉 미숙과 결핍, 불완전 등의 이미지로 재현되는 성장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유독 경계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정상’과 ‘완전’의 기준이 오직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와 언어, 제도에의 적응 여부에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텍스트들에서는 이야기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상황, 즉 성장 이전의 주인공들은 예외 없이 낯선 대한민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의 학업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설정되어 있다. 『나는야 늙은 5학년』에서 탈북민 명우에게 닥친 시련 중 하나는 영어다. “명우가 보기에 영어는 남조선 전체를 덮고

있는 괴물”(조경숙 2009, 66)이다. 영어를 모르면 그 괴물에게 잡아먹혀 이 사회에서 낙오됨을 의미하기에 이 자체만으로도 명우는 불안전하고 결핍된 존재,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가 되는 셈이다. 영어가 익숙하지 못해 곤란해 하는 상황은 『난민 소녀 리도희』에도 등장한다. 도희의 하나원 동기인 영화는 미용에 관심이 많지만 “루트, 초이스, 라이프스타일. 한글맞춤법도 잘 모르면서 영어 검색까지 하려니 힘든”(박경희 2017, 88)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다. 언어의 미숙함으로 인한 문제는 영어뿐 아니다. 『피양 랭면집 명옥이』에서 탈북민 명옥은 친구들과 다른 자신의 말투가 부끄러워 언어장애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한다. 『난민 소녀 리도희』의 주인공 도희 또한 “남한 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말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박경희 2017, 82)하고는 애써 서울 말을 쓰려고 노력한다.

언어뿐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에서 비롯된 다양함이 ‘차이’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의 이유가 되는 상황은 여러 소설에서 계속 등장한다. 디이나는 무슬림이라 돼지고기가 든 카레를 먹지 못하지만 디이나의 이러한 식문화는 존중받지 못하며(「반두비」), 체벌을 하지 않는 베트남 학교를 다녔던 티안이 매질을 하는 선생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역시 그저 티안이 한국의 교육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만 그려진다(「혼자 먹는 밥」). 언어나 식문화, 교육환경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의 기준이 되면서 경계인들은 자연스럽게 부족하고 불안전한 상태, 즉 ‘비정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교육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른 교육환경에 있었거나 최소한의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경

우가 대부분이라 대한민국의 교과과정과 입시제도, 또래 친구들의 학업수준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겨운 이들에게 그 차이를 인정해 주거나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기준과 수준을 당연한 잣대로 삼아 ‘열등’과 ‘비정상’이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상황이 소설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소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규범이나 문화, 관습에 미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 불완전하며 결핍된, 한마디로 문제적인 상태로 규정된 경계인 아동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강한 의지와 열정, 부단한 노력으로 최대한 빨리 이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기존의 대한민국 국민과 비슷해지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앞서 괴물 같은 영어 때문에 고생하던 명우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외국인 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야말로 아동청소년문학이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극복 방법이며, 그럴 때 비로소 ‘성장’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수를 쓰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앞으로 반에서, 아니 학교 전체에서 최고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될 테다. 누구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테다 하는 오기가 생겼다. (...) 명우는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했다. 등학교 시간을 이용해서 영어CD를 들었고 집에 가서도 숙제를 마치고 나면 잘 때까지 그 CD들을 듣고 또 들었다. (...) 알파벳도 외우고 단어도 보이는 대로 다 외웠다. 가끔 열심히 외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속상할 때면 형을 생각했다. 형이 했으면 나보다 훨씬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 부끄러워도 수업 시간에 손을 들

고 발표도 했다. 처음에는 킁킁거리며 웃던 애들도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명우의 발음이 좋아졌는지 나중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가끔 애들이 중국 말이나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지 명우에게 물어 오기도 했다(조경숙 2009, 71-75).

명우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에게만 따로 과외수업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를 하는 담임 때문에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에 매달린 덕분에 명우는 결국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도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게 된다. 즉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성장이라는 이상적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은 『울지마 산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버지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산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글을 쓰면서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런 모습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라고 일컫는 것이며, 아동청소년문학이 권장하는 바이다.

결국 경계인 아동청소년들의 미성숙/성숙, 결핍/성장을 가르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사회와 문화에의 동화 여부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을 성공한 성장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모습은 ‘다문화’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권위를 앞세워 정상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에 동화되

도록 하는 오염되고 변질된 의미의 ‘다문화’ 사회일 뿐이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경계인을 인정하려면 공존과 공생을 위한 책임은 편입된 소수만이 아니라 다수의 기존 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동질성에 익숙했던 다수의 구성원들에게도 낯설고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모색하고 연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없습니다.”

비행접시 선생님이 이마를 찡그렸다.

“일없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난 그래도 네 편에 서서…”

명우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 자기가 “일없습니다”라고 한 말을 비행접시 선생님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는 괜찮다고 말한 것이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한 걸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지? (…)

명우는 알렉스 선생님의 말도 놀라웠지만 갑자기 쌀쌀해진 비행접시 선생님의 태도에 더 당황했다. 그놈의 “일없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정말 너무 억울했다. 형이 왜 그토록 서울말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씩씩했다(조경숙 2009, 72-73).

인용한 이 대목은 『나는야 늙은 5학년』에서 명우에게 우호적이었던 옆반 교사가 명우가 괜찮다는 의미로 말한 ‘일없다’는 표현의 의미를 몰라 명우를 오해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오해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상대의 언어를 몰랐던 교사에게 있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 난처해하고 불편해하는 쪽

은 소수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명우다. 2022년 3월 기준, 약 33,800여 명의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언어는 퀴즈프로그램이나 코미디프로그램의 소재로만 잠깐씩 등장할 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다수’의 노력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탈북민뿐 아니라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의 언어에 관심을 보인 적은 사실상 거의 없다.9)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동청소년문학에 대입해 보자면, 경계인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주체가 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계인을 소재로 한 대다수의 아동청소년문학은 성장이 필요한 미완의 인물, 문제적 상태의 인물로 경계인들만을 한정할 뿐 그들과 함께 갈등 상황을 만드는 또 다른 주체인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낯선 존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그들의 내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나는야 늙은 5학년』의 초점화자는 탈북민 명우이므로 명우를 놀리고 괴롭히는 동진은 그저 나쁜 아이로만 그려진다. 이후 우연히

9) 호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이민 아동들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다른 호주인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다(정종진 2011, 58).

명우가 동진의 개인 사정을 알게 되어 그를 이해하게 되기 전까지 명우의 시선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만 접한 독자에게 동진은 그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철없는 아이의 이미지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인물들은 이야기 후반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경계인인 주인공에게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변화하게 된 계기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역시 생략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이 새로운 사회의 운영 방식이 기존의 문화와 정체성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동화와 통합을 요구하는 동화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를 지향한다면,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익힐 책임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는 다수의 기존 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생김새가 조금 다른 낯선 인물과 공존하게 된 상황은 편입된 이들뿐 아니라 기존 구성원들에게도 결코 편하거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내면이나 반응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명우가 남한 사회와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 다른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명우네 반 아이들 또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존재나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인간이 보이는 가장 본능적인 반응은 두려움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많은 경우 그것의 원인이 되는 낯선 존재를 향해 비난과 분노, 시기와 혐오 등의 감정으로 변질되어 그들을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계인을 소재로 한 문학에서 이러한 측면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수를 이루는 기존의 구성원들이 보이는 이 불편한 감정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들에게는 낯선 존재와의 공존을 위한 성장이나 변화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원래 자신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려움과 같은 감정 또한 타고나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¹⁰⁾ 결국 이를 위해서는 명우가 주인공이 되어 낯선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장이야기뿐 아니라 동진이나 은지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들과 언어나 문화가 다른 낯선 존재를 처음 만나 갈등을 겪으면서 공존하는 과정을 다룬 성장이야기도 필요한 것이다.

10)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나 혐오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2020)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3. 갈등이 부재한 행복한 유토피아

“세상과 대결하는 내면이 아니라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고 종결시키는 서사가 존재할 뿐”(허병식 2009, 78)이라고 오늘날 청소년문학의 한계를 꼽았던 어느 비평가의 지적은 경계인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물론 실패와 좌절의 결말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성장소설의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다. 성장에 성공했을 때 비로소 ‘성장소설’이라는 이름이 허락되기에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소설 플롯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특정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다거나 첨예한 긴장 상황은 생략된 채 너무나 쉽게 해결됨으로써 위의 지적처럼 ‘해결’이기보다는 ‘봉합’에 가까운 형태로 마무리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사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인 ‘갈등’의 측면에서 본 경계인 소재의 아동청소년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소설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 상황의 상당수가 성인 경계인들이 겪는 문제라는 점이다. 『외로운 지미』에서 주인공은 분명 초등학생 지미지만 이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큰 갈등은 불법체류자라는 아버지의 신분을 약점으로 삼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와의 대결 상황이다. 처음에는 한국인인 지미의 어머니가 1인시위를 하며 고용주에게 맞섰으나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결국에는 어린 지미가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의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맞서 싸운다. 『울지마 산타』에서도 산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친구들의 놀림이나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는 아버지의 처지다. 산타의 부모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벌금 낼 돈이 없어 가지 못한 채 단속의 공포에만 시달리고 있다. 산타가 걱정하는 것 역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의 문제나 학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강제추방이다.

『울지마 산타』에서 초점화자는 어린 산타지만 몇몇 대목은 성인 서술자의 시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설명이 제시되는데, 그렇게 서술되는 내용은 모두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법한 어려움이 아니라 고용허가제의 한계, 불법체류의 상황과 같이 전적으로 성인 경계인들의 문제다. 물론 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한 공포와 불안,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아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설의 독자인 아동청소년들도 이런 문제들이 탈북민, 이주노동자, 난민을 둘러싸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충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종류의 갈등은 어린 주인공들이 직접 관여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짧은 분량의 아동청소년 문학에서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갈등과 긴장 상황은 산타 아버지처럼 고국으로 강제추방되거나 지미 아버지처럼 주변의 도움으로 밀린 임금을 받는 등 급하게 봉합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과 제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논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지난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청소년문학인 만큼 불법체류, 임금체불, 일터에서의 인권 유린 등 성인 경계인들의 문제가 아닌 아동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이나 학교에서 겪는 갈등을 다룬 소설도 많다. 언어와 문화, 교육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과 긴장이 주를 이루는데, 문제는 앞서 2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인공인 경계인 아동청소년의 시선에서만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 대립과 긴장의 상황이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해결되는 과정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된 채 쉽고 빠르게 봉합되는 형태로만 제시된다는 것이다. 『나는야 늑은 5학년』에서는 처음부터 명우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던 동진이 특별한 계기 없이 명우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둘 사이의 대립 관계가 끝나는가 하면, 『외로운 지미』에서도 지미를 놀리던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꾸고 조력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등 충분한 화해 과정이나 계기 없이 갈등이 급하게 봉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 아예 갈등이 부재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국적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난민센터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그린 『어느 날 난민』에서는 난민이라는 낯선 경계인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몇 해 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만든 제주의 예멘 난민 사태를 떠올려 본다면 난민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난민』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동네에 난민들의 임시거주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에 사오십 명가량의 주민들이 모여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 시위를 하는 것, 이 짧은 한 장면이 소설에서 재현되는 난민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

의 전부다. 비록 허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소설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난민은 불편과 불쾌, 혐오와 배제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갈등이 축소되어 있거나 아예 부재한 사회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예멘 난민들을 괴물 취급하며 우리 사회에 발 딛는 것조차 거부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던 현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무런 갈등과 충돌 없이 평화롭기만 한 유토피아 같은 허구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동청소년이 보는 문학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무대”(안수연 2017, 230)여야 한다는 고루한 편견을 앞세워 부끄러운 사회의 실상을 부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주하면 불편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문제 상황을 직접 경험하게 될 아동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동청소년문학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는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어울려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사회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갈등과 긴장을 외면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여러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조력자의 존재다. 조력자는 성장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이 자체가 문제적일 것은 없다. 다만 임금체불과 같이 현실에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소설에서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비교적 손쉽게 해결되는 것은 개연성이 부족한 상투적 서사 진

행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외로운 지미』의 경우, 처음에는 지미를 오해하고 차별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지미를 도와 지미 아버지의 임금 체불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나선다. 친구들이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편지 등을 이용해 지미네 사정을 여러 곳에 알려 도움을 청하고 임금을 체불한 공장 사장에게도 호소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한 결과 결국 밀린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계인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가 불합리한 사회 정책과 제도 등의 구조적 문제 또는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편견 때문이 아니라 그저 몇몇 개인의 잘못된 태도와 부도덕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읽히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수의 개인에게만 문제의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확대되기 때문이다.

『울지마 산타』에도 비록 산타 아버지의 강제추방을 막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산타 가족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할 경우 대신 싸워주기도 하는 이정 신부와 같은 조력자가 있으며, 『리무산의 서울입성기』에서는 홀로 된 어머니와 아픈 자신을 돌봐주는 조선족 출신 아버지가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결혼이주여성을 향한 편견과 그것에서 비롯된 오해가 주된 갈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마, माम, 엄마」에서도 조력자 역할을 하는 수연의 아버지나 할머니 덕분에 갈등은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된다.

게다가 이러한 조력자 인물들 대부분이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불편하게 봐야 할 지점이다. 『외로운 지미』에서 처음부터 지미의 사정을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들은 어린 시절의 가

난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흥이 삼촌과 구두땀이를 하는 고아 현우인데, 이들 모두 편모와 고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를 경험했기에 처음부터 지미가 느끼는 고립감에 쉽게 공감하고 그의 편에 서게 된다. 『피양랭면집 명옥이』에서 명옥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힘찬이 역시 심한 아토피 때문에 평소 친구들과로부터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아이였으며, 「반두비」에서 디이나에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민영은 자신의 아버지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본에서 돈을 벌고 있어 디이나와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혼자 먹는 밥」에서 주인공 티안에게 호의적인 친구 현아는 아빠가 없는 아이이며, 「마, 마미, 엄마」에서 도둑으로 몰린 세이를 도와준 수연 역시 엄마가 베트남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울지마 산타』에서도 산타네 가족에게 우호적인 이들은 모두 베트남과 미얀마, 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경험했던 사연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어느 날 난민』에서도 난민신청자들과 쉽게 친구가 되고 그들의 편에 선 인물은 부모도 집도 없이, 심지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도 할 수 없는 민이라는 아이다.

이처럼 경계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호의를 베푸는 인물은 대부분 차별과 고립이라는 경계인들의 처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들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그러한 설정이 소설이라는 허구의 공간에서 현실적 설득력과 개연성을 더 높일 수는 있겠으나, 이 자체가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따돌림과 차별, 사회적 낙인과 같은 고립감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기꺼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편이 되어 그들과 친구가 되는 조력자 인물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물론이고 소설 속 세계에서도 실현되기 어려운 요원한 상상인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장에서 비판하고자 한 지점은 경계인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들이 갈등이나 대립 상황을 간략하게만 그리거나 그마저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러한 갈등마저 조력자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해결되는 데, 이때 경계인들에게 우호적인 조력자 또한 차별받고 배제된 또 다른 형태의 소수자라는 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열린 주체의 형성 과정은 합리적 의사소통의 합의 과정이 아니라 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통한 정체성 형성의 과정”(진은영 2008, 275)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갈등 없이 마냥 평화롭기만 한 유토피아의 사회가 아니라 갈등과 충돌이 적절하게 드러나는 불편한 모습이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성인 경계인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같이 경계인 아동청소년들이 당장 겪을 수도 있는 문제, 그리고 아동청소년들 스스로가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일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 2세의 모습을 그린 근래의 소설 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완득이』를 두고 그것의 문학적 성과와 의의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한편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현실적인 고통을 대면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의 배려 속에서 쉽사리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완득이”를 가리켜 “훼손되지 않은 세계 속에 있는 동화적 인물”(김명순 2009, 235)이라고 비판

하는 이도 있다.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좋은 세계만을 보여줄 때 청소년들은 소설에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자신을 찾는 데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김명순 2009, 235). 문학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라 갈등과 긴장, 대립과 충돌로 가득한 디스토피아의 세계를 그리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시민 교육과 문학의 상관성을 논하는 누스바움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 주목한 바 있다. 인간의 삶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나쁜 상황을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상상하여 재현한 것이 비극인데, 독자는 이러한 비극을 읽음으로써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쁜 상황에서 발생할 고통과 상실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Nussbaum 1998, 93).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재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게 될 뿐 아니라 그러한 비극적 상황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상상과 함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갈등과 긴장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밋빛의 이상적 세계만 접할 경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상상력은 빈곤해질 수 있다. 반면 가상의 비극적 상황을 접함으로써 그것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경계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 담론에 대해 문학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4. 경계인과의 공존을 위한 경계(警戒)의 문학

앞서도 언급한 『완득이』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 중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낯선 향락을 즐기는 ‘타자’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즐기는 방식을 배우면서 ‘우리화’되기를 바라는”(정선주 2014, 145) 소설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청소년문학들 또한 탈북민과 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 2세), 난민과 같이 다양한 경계인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완득이』를 향했던 저 비판처럼 ‘우리화’되기를 기대하는 의도가 내재된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펴본 소설들에서 성장해야 하는 주체는 다양한 존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소수의 경계인들이었으며,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다수라는 이름으로 정상성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였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그들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은 숨기거나 부정해야 했다. 이렇게 일방에게만 강요된 성장은 낯선 존재들과 어울려야 하는 다수의 이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무조건적 환대나 포용의 태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와 가까워지는 과정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 지금의 아동청소년문학은 아이러니하게도 경계인들에게 ‘만’ 주목하는 것이다.

낯선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대립의

모습은 생략된 채 비교적 평화로운 모습으로만 그려지는 것이 오늘날 아동청소년문학의 아쉬운 부분임을 지적하며 문학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마주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다. 불편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굳이 상상해 보고 미리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기 위함이다. 미래 사회를 상상하는 대부분의 문학이 그 사회를 디스토피아의 형태로 그리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경계인들이 점차 많아지는 상황을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즉,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이지만 지금까지는 소수의 경계인들이 다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조화되기를 요구하는 형태만 주로 제시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제는 소수를 향한 다수의 시선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아동청소년문학이야말로 이런 문제의식에 비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문제의식이었다. 사회적 약자인 경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환대의 시선을 보인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시선의 이면에는 다수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적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한다. 경계인들에 대해 자신은 정의롭고 선량하며 우호적인 조력자이고, 소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긴장보다 평화나 환대의 모습

만 가득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착각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불편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인권감수성을 경계하고 예민하게 해야 하는데, 문학이야말로 이러한 경험을 도와줄 최적의 매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 김명순. 2009. "청소년 소설의 문학적 성격과 문제점."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6호. 221-241.
- 김성진. 2011. "청소년 소설의 장르적 특징과 문학교육." 『비평문학』. 제39호. 60-83.
- 김태호. 2021. "아동서사문학 연구의 향방." 『아동문학평론』. 제46권 제2호. 36-51.
- 김화선. 2009.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성장 서사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5집. 553-576.
- 노희정. 2016. "인권감수성 신장을 위한 도덕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53호. 125-144.
- 누스바움, 마사. 2020. 『타인에 대한 연민』. 임현경 옮김. 서울: RHK.
- 로터, 리처드. 2020.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 김동식·이유선 옮김. 서울: 사월의책.
- 박경희. 2017. 『난민 소녀 리도희』. 서울: 뜨인돌출판사.
- 박정애.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다문화' 갈등과 그 해결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1. 417-453.
- 스미스, 애덤. 2009. 『도덕 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 안수연. 2017. "'탈북' 소재 동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0호. 227-254.
- 임정택 외. 2021.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아동문학 권장도서 분석." 『한국이민학』. 제8권 제2호. 138-159.
- 정미진·이영석. 2018.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양상." 『인문학연구』. 제37호.

261-290.

정선주. 2014. “소설 완득이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판타지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7권2호. 129-158.

정재립. 2018. “청소년 문학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어문교육』. 25권. 5-24.

정종진. 2011. “호주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전개 과정과 현황.” 『교육실천연구』. 제10권 제1호. 47-73.

조경숙. 2009. 『나는야, 늙은 5학년』. 서울: 비룡소.

진은영. 2008.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哲學』. 제95집. 255-283.

최현주. 1999.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용환. 1999. 『소설학사전』. 서울: 문예출판사.

허병식. 2009. “청소년을 위한 문학은 없다.” 『오늘의 문예비평』. 63-82.

호프만, 마틴. 2011. 『공감과 도덕 발달: 배려와 정의를 위한 함의들』. 박재주·박균열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Nussbaum, Martha C. 1998.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Harvard U.P.

Oatley, Keith. 2011. *Such Stuff as Dreams: The Psychology of Fiction*. John Wiley & Sons Inc.

The Human Rights of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and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Literature

Focusing on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Kim Kyungm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day's human rights are based on citizenship, not the concept of natural rights, so they have exclusive and limited properties that prevent them from being properly guaranteed to those who have moved across border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What is just as important as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based on law and politics is to recognize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as equal human beings, which requires the cultivation of human rights sensitivity. Literature helps readers to understand others by immersing them in the lives and emotions of others and, thus, is a good medium for developing such human rights sensitiv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literary texts are properly equipped with human rights sensitiv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literary works rea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in their formative ages for developing human rights sensitivity.

Many of the children's and adolescents' literature centering on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follow the plot of coming-of-age novels like other children's and adolescents' literature, but the problem is that in many of these works, this 'coming-of-age' or personal growth is unilaterally required only for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crossed borders are defined as being deficient and immature because they have not adapted to Korean society, while the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they must live with are not required to grow or change. In

addition, conflicts that inevitably occur as people of various cultural identities try to coexist are omitted from or minimized in the narratives, and the conflicts that are depicted in the narratives are easily resolved by a third-person without sufficiently showing the need for such conflict and the value of democracy that could be learned in the process.

■ **Keywords:** Human Rights, Human Rights Sensitivity, North Korean Defectors, Migrant Workers, Refugees, Children's and Adolescents' Literature

투고: 2022.08.28. 심사: 2022.10.25. 확정: 2022.11.11.